

처음 퍼블리셔 일을 시작했을 땐 '내가 배우고 익힌 코드가 실무에서 완벽히 적용 될까?', '내가 퍼블리셔로서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새로움의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맡은 간단한 수정 작업 이후 하나 하나 완성해 가며 쌓이는 페이지만큼 점점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자신감과 더불어 실력이 늘어남이 느껴진 입사 3개월 즈음부터는 한 페이지 이상을 도맡아 작업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퍼블리싱을 즐기며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좀 더 다양한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순 퍼블리싱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자바스크립트와 다양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독학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프론트엔드 지인에게 과외를 받고 다양한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스터디를 병행하여 부족한 기술 스펙을 보완하려 하였습니다. 현직 프론트엔드들 중 경력의 쌓임만큼이나 단순 화면 구성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인터랙션, 크로스 브라우징, 반응형 등 좀 더 복잡한 UI 개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터디를 하며 깊이만이 아닌 넓이,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능통한 전공자보단 스킬의 깊이는 떨어짐을 압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인터랙션 UI를 할 줄 알며 단순 화면 기준이 아닌 웹 표준을 고려한 마크업, PC와 모바일 모두 대응 가능한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한 프로젝트 진행 등 스킬의 다양성은 넓다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멈추지 않고 기술 스펙을 보완하고 기존 전공자들이 가지지 못한 넓이라는 저만의 장점을 살려서 UI 핸들링이 능숙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향 발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상대가 '컴퓨터'이든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업무를 위한 도구로써의 '언어'와 클라이언트 및 팀과의 협업을 위한 목적으로써의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퍼즐을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며 조직 내 혼자가 아닌 조직과 더불어 성장하겠습니다. 이전 퍼블리셔에서의 노하우와 새롭게 익힌 코딩 능력을 접목시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구현코자 합니다. 겸손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실력'을 인정받는 '나'를 만들어 '조직'의 튼튼한 뼈대가 되겠습니다.